조지아관광청 with 문의 1800-1454
코카서스 3국10일여행
3월29일출발 초특가 329만원 GTG Korea 서울사무소

리메이크 음반 '그대만 있다면'으로 3년 만에 돌아온 **신지수**

"치유의 3년…친구들 응원으로 초심 찾았죠"

딱 7년 전, 가수 신지수(26)는 인생의 목표였던 데뷔만 바라보고 달렸다. 오직 "음악 하나만 생각"했다.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밀려들었다. 그럴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더 옭아매고 채찍질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도 듣기 싫어졌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됐다.

2011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3을 통해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음악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지수가 2015년 정식 데뷔한 후 돌연 모습을 감췄다. 신인 가수가 부지런히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해도 부족한데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모험과 같은 결심을 했다.

"재정비 시간이 필요했다. 오디션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열아홉 살이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 '데뷔'가 인생의 목표가 된 저를 보고 괴리감과 박탈감이 생겼다. 처음 몸담았던 기획사에서도 나오게 됐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적인 방향과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내면을 다지는데 알찬 시간이었다. 신지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20대에 할 수 있는 걸 찾았고, "로망"이었던 여행을 떠났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정작 나는 음악으로 위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중요한 건 음악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돼야겠더라. 학교(복학)와 여행을 피난처로 삼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했다. 교만했다는 것도 깨닫고 반성도 많이 했다. 아프고 곪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됐다. 돈으로도 못사는 값진 경험이었다."


새 음반 재킷

음악에 괴리감…복학·여행으로 도피
중2때 듣던 '그대만 있다면' 리메이크
유명한 곡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었다

오랜 공백기간을 끊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음악이었다. 한때 듣기도 싫었고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던 음악이지만, 또래 친구들이 "네 목소리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조언과 격려에 용기를 냈다.

"초심으로 돌아가" 감수성을 살릴 수 있는 음악에 대해 고민했다. 신곡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면서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자는 생각에 리메이크 곡을 내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표한 곡은 2006년 혼성밴드 러브홀릭이 선보인 '그대만 있다면'이다.

"돌이켜보면 '중2병'이 맞는 것 같다. 하하!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초심을 찾게 됐다. 오래 쉬고 나와서 '신지수는 이런이런 색깔을 가진 가수'라고 알리는 것보다 이미 유명한 곡으로 저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리메이크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딱 떠오른 노래가 '그대만 있다면'이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즐겨듣던 곡이다."

사실 리메이크는 양날의 칼과 같다. 유명한 곡을 잘못 리메이크했다가는 좋은 곡을 망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신지수는 그런 비난의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쓸데없이 많은 걸 생각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재해석, 그 하나에 초점을 맞췄다. 제가 느낀 감성을 그대로 전달해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켰으면 된 거다. 음악은 재밌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다."

한결 홀가분해졌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다. 더 이상 "잦은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목표도 당연히 "방송활동을 많이 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많이 서는 것"이다.

그리고 공백기동안 "치유 목적"으로 배웠던 미술을 이용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지수는 현재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유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엽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그림을 그려 판매하고 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미술가로서 예명도 있다. 하하! 피카소를 꿈꾼다는 의미에서 '베비카소'(babicasso)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린 그림 수만 100편이 넘는 것 같다. 음반재킷도 내가 그린 거다. '그대만 있다면'과 잘 어울릴 것 같아 '허그'라는 제목도 붙였다. 이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이 언제인가 싶지만,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살 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11년 '슈퍼스타K' 시즌3를 통해 주목받은 신지수가 오랜 공백을 뒤로 하고 가요계로 돌아왔다. 독특한 음색은 여전하고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사진제공 |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김유정, 갑상샘기능 이상으로 활동 중단


김유정

연기자 김유정(19)이 갑상샘기능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유정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6일 "이달 초 갑상샘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정의 건강 이상으로 그가 4월부터 주연으로 참여하려던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연기자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촬영을 중단했다"며 "4월 방송 예정이었지만 김유정의 회복을 고려해 하반기로 편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역 연기자 출신인 김유정은 MBC '해를 품은 달',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찰, 조민기 성추행 의혹 수사 가속도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에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민기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과 졸업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내사를 벌인 경찰은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청주대학교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진상조사 내용도 확보했다. 조민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주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민기를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26일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무엇보다 배우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한 점 사과한다"며 "조민기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스텔라, 7년 만에 해체

걸그룹 스텔라가 결성 7년 만에 해체했다. 스텔라는 25일 연 팬미팅 자리에서 그룹 해체 소식을 직접 밝혔다. 이날 팬미팅에는 그룹에서 활동하는 멤버들 뿐 아니라 앞서 탈퇴한 멤버들까지 참석했다. 스텔라는 앞서 멤버 효은이 SNS를 통해 팬미팅 일정을 공개한 뒤 "마지막 팬미팅이 될 것 같다"고 밝혀 해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룹 해체 뒤 스텔라 멤버들은 각자 새로운 연예 활동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로켓걸'로 데뷔한 스텔라는 그룹 신화의 멤버 에릭이 프로듀서를 맡은 걸그룹으로 주목받았다. '마리오네트', '찔려' 등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멤버 가영, 전율이 탈퇴하고 소영을 새 멤버로 영입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양승동 PD,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

양승동(57) KBS PD가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됐다. KBS 이사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장 지원자 양승동·이상요·이정옥 후보 3인 최종 면접을 진행해 양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시민평가자문단의 평가 점수(40%)와 이사회 평가 점수(60%)를 합산해 최고점을 받았다. KBS 이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승동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뒤 대통령이 지명하면 추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양승동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BS에 입사해 '추적 60분', '역사스페셜' 등 시사고발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등을 연출했다. 제21대 한국PD연합회장을 지냈다. KBS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1월 23일까지다.

심형래 유랑극단, 3월2일부터 전국 순회

코미디언 심형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극단을 만들어 3월2일부터 전국 순회공연에 나선다. 심형래가 결성한 '심형래 유랑극단'은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공연을 벌일 계획"이라며 "1980년대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 속 콩트를 리메이크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에서는 '2018 변방의 북소리', '심형래 토크쇼', 개그맨 한상진과 김만호의 '만담개그' 등 추억의 코너가 소개된다. 이 가운데 '2018 변방의 북소리'에는 개그맨 송영길과 곽범, 김장군이 출연해 심형래와 호흡을 맞춘다. 심형래는 "최근 전국 축제를 다니며 코미디 공연을 해왔는데 이전에 선보였던 코미디를 그리워하는 분이 많아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쇼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